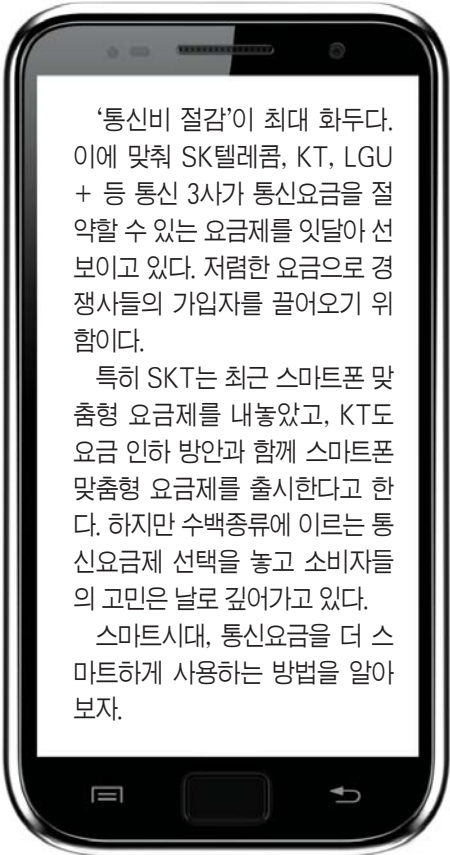


통신비, 스마트하게 ~ 나에게 맞는 요금제는



◇결합 상품 요금제=통신사 결합 상품을 이용하면 가계의 통신요금에 눈에 띄게 줄일 수 있다. KT가 최근 선보인 '몽치면 울레'는 인터넷 또는 집 전화와 이동전화를 함께 이용하면 이동전화 회선 수에 따라 회선별 할인 혜택이 점점 커지는 유·무선 결합상품이다. 기존 결합상품이 총액으로 할인되거나 일정 비율로 할인되던 것과 달리 가족수가 많을수록 개인별 할인 혜택이 늘어난다.

울레 인터넷을 이용 중인 고객이 이동전화 약정할인 서비스인 스마트스폰서·쇼킹스폰서 i형/플드형으로 신규가입 또는 기기변경 후 90일

등의 결제에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통신 3사의 지난해 마일리지 사용률이 10.1% 수준에 그치는 등 가입자들이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

오는 11월부터는 통신 3사 모두 마일리지로 데이터 통화료를 결제할 수 있게 되면서 활용빈도가 더욱 늘 것으로 보인다.

또 소멸되기 한 달 전에는 주요 이용처와 관련 홈페이지 경로(URL)를 명시한 SMS를 받을 수 있게 됐고, 마일리지로 요금을 결제할 때마다 신청해야 하는 점과 적립액의 범위 내에서만 신청할 수 있는 불편함도 사라질 예정이다.

◇내게 맞는 최적요금제를 찾아보자=한국통

◇스마트폰 맞춤형 요금제=SK텔레콤은 지난 16일 사용자의 이용패턴에 따라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는 '스마트폰 맞춤형 요금제'를 국내 통신사 최초로 출시했다. 지금까지 스마트폰 가입자들은 모두 저렴하게 음성, 데이터, SMS(문자 메시지)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올인원 요금제'를 사용했다. 하지만 가입자 모두의 사용패턴을 반영하기 어려웠다.

이번에 선보인 '맞춤형 요금제'는 필수선택 사항인 음성 9종류(150~1200분)와 데이터 5종류(100MB~2GB), 필수선택 사항인 SMS(문자 메시지) 3종류(200~1000건)로 구성돼 있다. 또 SMS 월 50건이 무료로 제공된다. 맞춤형 요금제로 사용자끼리 조합할 수 있는 요금제 수는 180가지나 된다.

따라서 음성과 데이터 사용량이 크게 차이나는 고객의 자신의 이용패턴에 따라 음성 또는 데이터를 고려해 요금제를 선택하면 혜택을 볼 수 있다. 즉, 자신의 스타일에 맞춰 음성과 데이터 사용량을 조절하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음성과 데이터를 비슷한 비율로 사용하거나 데이터 이용량이 많은 가입자는 기존 '올인원 요금제'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

SKT-이용자 패턴따라 음성·데이터량 조합 '맞춤형' 출시

KT-인터넷·집 전화·휴대폰 '결합상품' 회선별 할인혜택 커

통신사 마일리지로 통화료 결제... '최적 요금제' 검색도 가능

이내에 걸쳐 울레에 가입하면 최대 5회선까지 각 회선별로 월 8000원에서 1만2000원까지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신규결합 회선이 5회선이면 1명당 1만2000원씩 총 6만원의 할인받게 돼 2년 약정기간 동안 144만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이 밖에 각 통신사별로 IPTV, 휴대전화, 인터넷 등 결합 상품을 이용하면 통신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통신사 마일리지로 활용하자=SK텔레콤의 '레인보우 포인트', KT의 '울레클럽 별', LG유플러스의 'ez포인트' 등 통신사 마일리지도 활용빈도가 높다.

실제 SK텔레콤 '레인보우 포인트'의 경우 지금도 휴대폰 AS, 국내 음성통화, 로밍사용요금, 컬러링 서비스, 싸이월드·네이트 도토리 충전

신사업자연합회(KTOA)가 운영중인 '이동전화 최적요금제 조회(010.ktoa.or.kr)' 사이트를 이용하면 나에게 필요한 요금제를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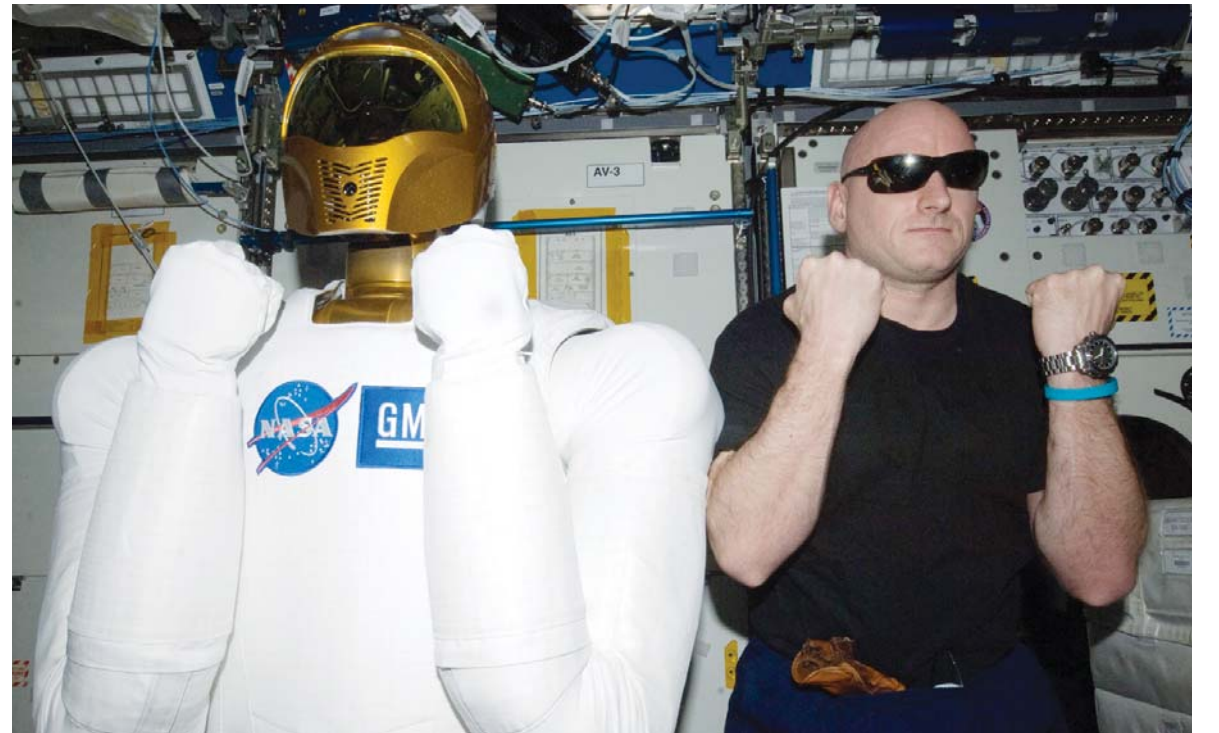
이 서비스는 이동전화 가입자가 입력한 통화패턴을 분석해 가장 적합한 이동통신 3사의 이동전화 요금제를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해 준다.

특히 이달 개편을 통해 음성요금제뿐만 아니라 데이터요금제·스마트폰요금제·결합상품 등 최근 통신이용 패턴에 맞게 새로운 요금제도 조회 기능을 추가했다.

조회가능 요금제는 190개로 전체 201개 요금제 중 94.5%를 지원한다.

또 요금제와 연계된 멤버십카드 혜택과 이용약관 등 이동통신과 관련된 정보제공 범위도 넓어졌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임무 개시!” 국제 우주 정거장에 보내진 휴머노이드 로봇 로보너트가 23일 처음으로 작동에 들어갔다. 사진은 지난 3월 우주비행사 스코트 켈리와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

우주정거장 배치 인간형 로봇 '로보너트' 잠 깨

우주인 도와 실험

미항공우주국(NASA)이 지난 2월 디스커버리호의 마지막 비행편에 실어 우주정거장(ISS)에 보낸 휴머노이드(인간형 로봇)가 22일 수면 모드에서 깨어났다고 운영팀이 22일 발표했다. 로봇과 우주인(astronaut)의 합성어인 '로보너트'(별명 R2)로 명명된 이 로봇은 우주에 배치된 최초의 휴머노이드로 우주인들을 돕는 실험을 하게 된다.

로보너트는 자신의 이름으로 보낸

트위터에서 “이 전자장치들은 정말 느낌이 좋아! 이전 인간에게 작은 한 발자국이지만 양철 인간에게 큰 도약이야!”라고 일상을 내뱉었다. 이어 “머리를 움직여 주위를 둘러보고 싶어!”라고 말했다.

아직 로보너트에 활동 명령은 내려지지 않았지만 배속의 주컴퓨터와 팔속에 숨어 있는 관절 제어용 프로세서 30여 개가 일제히 켜지자 지상 제어팀은 환호했다. 황금색 머리에 달려 눈 역할을 하는 4개의 가시광선 카메라와 깊이를 인지하는 입속의 적외

선 카메라도 모두 켜졌다.

로보너트는 아직 상태만 있는 상태로 키 130cm, 몸무게 150kg이지만 현재 다리도 설계 중이며 2013년까지 ISS에 도착할 예정이다.

운영팀은 모든 것이 순조로우면 로보너트가 ISS 내부의 공기 흐름 속도 측정 같은 통상적인 작업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로보너트는 우주선 내부용으로 제작됐지만 장차 외부작업용 로봇이 개발되면 우주 운영 작업 등을 맡아 우주인들의 안전을 지켜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북극 빙산 끌어와 물부족 해결?

프랑스 연구진 '3D시물레이션' 착수

북극해의 빙산을 끌어와 담수 부족으로 고생하는 지역에 깨끗하고 시원한 물을 공급한다는 기발한 아이디어가 프랑스 과학자들에 의해 시물레이션으로 옮겨졌다고 라이브사이언스닷컴이 보도했다.

빙산으로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한다는 아이디어를 처음 낸 것은 1970년대 사우디아라비아의 모하메드 알 파 이잘 왕자였다. 왕자는 프랑스 과학자 조르주 모갱과 합동으로 이런 방안을 추진하는 회사를 설립하기도 했지만 실패로 돌아갔다. 그러나 모갱은 2003년부터 프랑스의 3D(3차원) 솔루션 회사 다스 시스템사의 컴퓨터 모델 지원을 받아 이런 아이디어를

되살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

모갱은 최근 1150만달러가 투입되는 그린란드 빙산 끌어오기 시물레이션에 착수했다. 그린란드 부근 북극해에 떠 있는 700만짜리 빙산을 아프리카 북서 해안 카나리아 제도까지 끌어오려면 강력한 엔진 한 척이 있어야 하고 소요 기간은 약 140일로 추정된다. 이만한 빙산은 3만5000명이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물을 담고 있다.

다스 시스템사의 프로젝트 담당 세드릭 시마드 이사는 “우리는 모갱이 빙산 운송 작전을 시물레이션하면서 연료 소모량과 빙산이 녹는 정도를 계산할 수 있는 비주얼 세계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LG, 3D 노트북 출시

LG전자는 3차원(3D) 영상과 이미지를 촬영할 수 있는 3D 노트북 '엑스노트 A530' 시리즈를 출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제품은 3D 스마트폰의 듀얼 카메라 촬영 기술을 노트북에 적용해 누구나 쉽게 3D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3D 촬영을 위해 기존 노트북의 웹캠을 2개로 늘렸으며 간격을 36mm로 유지해 최적의 3D 촬영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연합뉴스



“스마트한 생활 비법 찾습니다”

방통위, 내달 14~30일 이용자 콘텐츠 공모전

방통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방통통신서비스를 스마트하게 누리는 이용자의 생활체험 사례 및 피해예방 아이디어를 선정하여 시

응모가 가능하다.

다음달 14일부터 30일까지 이용자 전용 홈페이지 (<http://www.wiseuser.go.kr>)로 응모하면 된다.

주제는 방통통신서비스를 활용한 이야기와 1% 고수들이 이용하는 나만의 노하우 등 이용자의 생활 체험 수기와 서비스 피해예방을 위한 콘텐츠 제안이다.

형태는 글짓기, 그림 또는 UCC로 표현하여 제출하면 된다.

심사는 주제 적합성, 독창성, 향후 활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며, 심사를 통하여 우수작품(12개)을 선정하고 11월 개최될 '제3회 방통통신이용자주간' 기념식에서 시상할 예정이다.

대상 1명에게는 상금 500만원이 주어지며 최우수상(3명) 각 200만원, 우수상(3명) 및 장려상(5명) 각 100만원이 주어진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한민족의 전설 삼족오

고구려 대무신왕

한민족 최고의 영웅 판타지! 고구려 대무신왕!

광개토대왕, 장수왕도 “대무신왕”이 없었다면, 지금의 위대한 고구려를 이룩하지 못했을 것이다!

한민족의 전설 삼족오 고구려 <대무신왕>은 천손의 뜻을 이어받은 고구려 제3대 제왕입니다. 지금부터 한민족 최대의 영웅, 대무신왕의 통해 광활한 대륙으로 뻗어간 고구려의 위대한 기상을 느껴보세요!



광주일보 즐거운 漢字에
고구려 대무신왕이 연재됩니다.

★신청하십시오!★
무료로 한자학습·역사학습을 하실 수 있습니다.
주간 즐거운한자 구독신청문의 : ☎ 062)220-0551

주간 즐거운한자는 광주일보를 구독하시는 분이 신청을 하시면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대능교육 문의 02)2634-2007 www.daemusin.com